



## 제11차 2007 벤처 CEO Summer Forum

# “대한민국을 이끄는 새로운 힘, 벤처!”

벤처기업협회(회장 백종진)는 지난 7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힐튼 남해리조트에서 '제11차 벤처CEO섬머포럼'을 개최했다. 올 섬머포럼은 기업의 미래전략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특별법>연장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포럼 및 토론을 통한 '벤처2기 로드맵' 공유의 장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참가한 70여명의 벤처 CEO들이 활발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산업별 협력강화를 다짐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청 이현재 청장



(왼쪽부터) 스틱IT 최병원 대표, 여성벤처협회 배희숙 대표, 한양대 한정화 교수



공식포럼 - 주제발표 및 토론

### 벤처 2기, 새로운 기회와 도전

이번 섬머포럼에서는 지난해 매출 100조 원, 수출 100억 불 돌파 및 <벤처천역클럽>등을 통해 증명된 벤처기업의 무서운 저력,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10년 연장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10년, 벤처 2기의 기회와 도전을 모색해보았다.

12일 첫날 포럼을 맡은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역동성 회복과 글로벌화를 위한 벤처 10년,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아 벤처기업인들과 새로운 벤처 2기 출범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이청장은 “정부측에서는 벤처특별법 연장 및, 총리주제로 벤처 2기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업계에서도 벤처천역클럽 102개사 돌파, 1조원대 벤처 투자규모를 갖추었고 언론에서도 벤처정책의 성과와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나머지는 현장의 벤처들이 벤처 지원 정책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축으로 제몫을 담당해 주셔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이현재 청장의 발표에 바로 이어 <단체별 의견 및 토론>이 한양대학교 한정화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국여성벤처협회 배희숙 회장과 벤처캐피탈협회 대표로 참석한 스틱IT벤처투자 최병원 대표가 참가한 입장 발표에서 최병원 대표는 “벤처캐피탈 업계는 우량벤처에 대한 투자이지 및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우수벤처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소기업청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벤처캐피탈과 우수벤처의 접선창구 기능을 모색해 달라”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였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의 이남형 이사도 참석, 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산업별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부품소재, 제조, IT/웹, 게임/콘텐츠 분야로 나눠 진행된 산업별 간담회에서는 벤처기업 특별법 연장에 따른 벤처 2기 정책에 대한 각 산업별 대응 및 보완책 토론이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전하진 인케코퍼레이션 대표는 벤처기업 성장에 따른 전문CEO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송승한 쏘다넷 대표는 프리보드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벤처대표들의 의견들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 유창무 부회장이 <FTA시대의 도래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새로운 무역환경을 맞이한 벤처가 유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특강을 펼쳐 많은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 새로운 10년을 여는 벤처의 로드맵을 제안

올 벤처CEO섬머포럼은 새로운 벤처 10년을 여는 로드맵을 모색하는 자리인 동시에, 경상남도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벤처 CEO들의 열정과 화합이 빛난 자리였다.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다수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법. 다양한 분야에서 부지런히 벤처를 이끄는 CEO들이 모여 기업성장과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2007 벤처CEO섬머포럼”.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벤처 리더들을 응원하며 더욱 활기찬 2008년의 여름을 기대본다.



한국무역협회 유창무 부회장



축하 만찬의 밤



2007 벤처 CEO 섬머포럼 참석자 일동